

碩·博士學位 論文의 整理와 利用에 관한 調查研究

—서울市內 15個 綜合大學校 圖書館을 中心으로—

金 萬 碩
(弘益大學校 中央圖書館)

I. 序

1. 研究의 背景과 問題의 제기

本 主題에 관한 調查研究를 시도한 動機는 論者가 그 동안 圖書 整理業務의 一線에서 근무하여 오던 중, 學位論文의 整理時마다 제기되어 문제점으로 느끼는 고충과 불편과 모순점을 어떻게 시정하여 개선해 나갈 것인가? 이른바 학위논문을 어떤 방법으로 인수하고 정리하여 이용시키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방법인가 하는 문제에서 착상된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하자면 다음과 같다.

가) 學位論文은 엄격히 도서의 성격상 미간행물이며, 도서가 아닌 일종의 학술연구보고서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것을 일개 단행본으로 취급하여 등록대장에 등록하고 장서화한다는 것은 수서업무상의 모순이며 수서정책의 부실이라 할 수 있겠다.

나) 學位論文은 복합 주제에 보다 세밀한 분류를 요구하고 있어 일반 도서 보다 까다롭고, 時間上 人力上 여러 면에서 노력의 소모를 과중시키고 있어, 도서 정리상 신속성과 원활한 이용에 대응하기에 난점이 있다.

다) 학위논문 의 증가는 수증도서의 주종을 이루다시피 하여 급증하는 추세이며, 일반도서와 똑 같은 정리를 거쳐 이용시킨다는 것은 보다 많은 정보를 보다 신속하게 열람자에게 제공해야 된다는 봉사의 대원칙에 역행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신속한 인수와 신속한 정리에 의하여 신속한 열람을 가능케 하는 대응책이 수립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2. 假設의 設定과 研究의 方法

上述한 問題點을 토대로 하여 다음과 같은 假設을 세울 수 있으며, 이 가설을 입증하는 것이 本 研究의 目的이고, 이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結論으로 이어질 수 있겠다.

가) 대다수의 대학도서관이 학위논문을 등록하여 장서화하거나 이를 장서량 증대를 위한 장서통계에 삽입하고 있을 것이다.

나) 대다수의 대학도서관이 학위논문을 일반도서와 같이 똑 같은 절차를 거쳐 정리하지 않고, 정리를 생략하거나 다른 간절한 정리 방법을 택하여 이용시키고 있을 것이다.

다) 만일 학위논문을 등록하고 정리를 하는 도서관일지라도 정리를 안 하기를 바라거나 숨은 문제점을 제기할 것이다.

이상의 가설을 입증하기 위한 학위논문의 정리와 이용에 관한 설문은 논자가 作成한 21개 항의 기초자료에 의해 '80년 2월부터 3월까지의 기간 중 서울시내 15개 종합대학 도서관 사서과장 앞으로 설문서를 발송·회수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대상 도서관의 장서량, 직원수, 정리직원수, 연간 장서증가량 등을 관련된 기초자료로 삼았다.

II. 學位論文의 整理와 利用

1. 總體的 分析

가) 설문서의 회수는 2개 대학만 제외된 K대를 비롯한 13개교가 회신하여 줄으로써 15개교의 87%인 높은 회수율을 보였다. 따라서 本調査의 主된 자료인 설문서를 연구자료로 삼을 수 있었음을 밝혀 둔다.

나) 회수한 자료에 의하여 論者가 設定한 가설 3개항 중 '가' '다'항만 기대하던 반응을 보여주었을 뿐 '나'항은 論者의 견해와 상반된 반응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연구 목적에는 오히려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었다.

다) 회수된 자료의 분석 결과 단순분석만 가능하였으며, 복합분석이나 상호관련분석은 할 수 없었음이 본 연구 조사의 미흡점이었다. 즉, 등록하는 학교나 안 하는 학교의 수가 비등했어야 되었지만 반응이 그렇지 못하였으며, 정리를 하는 학교와 안 하는 학교의 반응도 비등하지 못했으며, 이용도의 높고 낮음이 없었으므로 각 항목 간의 비교 분석이 불가능하였다는 점이다. 따라서 총체적인 실태 분석으로 그치게 됨에 따라 보다 충실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아쉬움을 남기게 되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論者가 주장하고자 하는 견해의 입장에서—본자료의 총체적 분석만으로 충분하다고 사료되며, 이를 다시 부문별로 논술기로 한다.

2. 部門別 分析

가) 수서업무의 측면에서

학위논문은 모든 대학도서관이 수서실에서 인수하고 있으며, 등록대장에 등록하

고 있는 학교가 85%로 나타났음은 놀라운 일이다. 나머지 15%는 등록하지 않고 있으며, 論者의 견해로는 등록해선 안 된다고 보므로 등록하지 않는 H大와 Sn大만 정상이라고 볼 수 밖에 없겠다. 곧, 대다수의 대학도서관이 지금까지 장서량 증대에 치중한 나머지 학위논문을 장서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겠다. 그러나, 아무리 때늦은 감이 있다고 하나 학위논문의 장서화는 조만간 시정되어야 할 줄로 안다. 앞에서 밝힌바 있듯이 이것은 분명 모순이다. 그 다음 각급 학교에서 학생 일인당 도서관에 납본하는 권수는 20~30부가 가장 많아 60%를 나타내었으며, 모교 도서관에 보관 열람시키는 권수는 3~4부로 46%를 보였다. 이것은 납본량의 14%를 보관시키고 86%를 타교에 기증하는 셈이다. 한편 2부만 보관시키는 대학도 38%나 된다. 그리고 타대학으로부터 수증 받고 있는 대학수는 10개교~20개교가 61%로서 대학 상호간에 어떤 약정도 없이 무분별 또는 막연하게 주고 받는 것이 아니라, 각 대학마다 일정한 교환대상교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대상교가 더 늘거나 줄을 전망은 보이지 않으며, 다만 대학원생의 증가는 논문의 수를 늘리게 될 것이며, 논문의 증가만큼 수증과 기증량이 증가할 전망으로 보여진다. 수증 받고 있는 대상교를 유형별로 보면 전국대학이라는 반응이 54%였으며, 특별히 필요에 의한 선정대학(예: 사립대학교 도서관 협의회)이라는 곳이 38%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학교의 유형별 수증보다는 단과대학이든 종합대학이든, 국립이든 사립이든 이에 구애됨이 없이 대체로 자기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대학을 대상으로 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수는 극히 적어 10~20개교에 한정시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편, 연간 발표되는 학위논문 전수는 100건 내외가 가장 많아 61%의 반응을 보였으며, 이를 기준으로 한다면 20개교에서 수증받는 논문은 2천여권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발표된 논문을 모두 기증하고 있는 학교는 전체의 54%로 나타났으며, 정규대학원(특수 대학원 제외) 논문만 기증한다는 학교도 23%나 되었다. 이와 함께 수증받는 입장에서 살펴 보면 부피와 질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인수하는 학교가 70%로서 어떻게 해서든 장서를 늘려야 한다는 데 전제를 굳히고 있는 인상이었으며, 30%가 선별하여 인수하고 있었다.

여기서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해 본다면, 85%의 대학도서관이 등록을 하고 있는 한, 선별 인수는 장서를 버린다는 뜻이 내포되므로 무조건 인수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등록하면서 선별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질을 고려하거나 필요에 의한 선별일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이것도 모순점으로 볼 수 있는 소지가 있다.

나) 정리업무의 측면에서

학위논문의 정리는 85%가 정리실에서 하고 있었으며, 92%의 도서관이 학위논문도 일반도서와 똑 같은 방법으로 정리하고 있다고 응답 하였다. 특기할 것은 Sn大의 경우 등록은 안 하지만 정리를 하고 있다는 점이며, 학위논문을 장서로 취급치 않지만 이용을 위한 정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학위논문 정리상 모교와 타교를 구분정리하는 학교가 23%였으며, 구분 않고 일괄정리하는 학교는 70%로 나타났다.

학위논문의 정리는 거의 모두 하고 있는데 ‘안했으면 좋겠다’는 반응이 38%나 되었으며, 나머지는 ‘그대로 하여도 좋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문제는 정리는 하되 보다 간결한 최선의 방법이 있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다. 그러나 H大 경우만 제외하고 모두 그런 방법이 없이, 문제점을 안은채 유지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학교에서는 우선 정리방법을 개선하면서 인력을 확보해 나가는 방향을 모색해야 될 것으로 보여진다. 정리방법에 대한 문제는 차후 구체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과제로 접어두기로 하고, 우선 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정리 인력을 살펴 보기로 하겠다. 정리직원수가 15명 이상인 S大를 제외하고 7~9명인 도서관이 38%였으며, 4~6명이 30%, 3명 또는 이하가 15%로 나타났다. 명색이 종합대학교이고 장서가 10만여권을 훨씬 넘을 것을 고려할 때 3명이 채 못되는 도서관은 가히 업무의 과중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며, 장서 1만여권을 연간 증서한다면 이해될 수 없는 인원으로 분석된다. 15개교 평균 전체 직원수가 23명으로 나타났으며, 정리직원은 평균 6명꼴로서 전체 직원에 대한 정리직의 비율은 26%로 나타났다. 또한 연간 평균증서량은 11,000여권으로 나타남, 이상의 수치들은 조사대상교의 평균치이지 이상적인 어떤 기준치는 아니다. 이러한 평균치에 비등한 Yi大의 경우를 보면, 정리실 직원이 정사서 6명에 준사서 2명(보조원 제외)으로 전체비율 38%를 보였다. 평균치를 상회하고 있는 Yi大였다.

문제는 연간 장서 증서량을 11,000권으로 기준할 때 정리 인력은 최소한 6명선은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이 논자의 견해이자 주장이었다.

다) 열람업무의 측면에서

학위논문의 비치 열람 부서는 참고열람실이 가장 높아 61%였으며, 특수자료실(학위논문실 등) 23%, 대출실이 15%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용도는 92%가 높다는 반응이었으며, 열람실에 별도의 목록을 저자, 서명, 분류 등 3매씩 비치하고 있는 도서관이 46%로 가장 많았으며, 주제까지 포함한 학교도 23%나 되었다. 그러나 아예 별도의 목록도 비치하지 않은 도서관도 23%가 된다는 것은 열람봉사의 미흡함을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겠다. 여기서 특기할 것은 H大의 경우, 등록·정리를

안 한다고 응답하였으면서 주제카아드를 열람실에 비치하고 있다는 점인데, 이것은 논자의 견해로는 정리를 안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간결한 방법을 채택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다. 이용방법의 설문에서 거의 많은 대학이 참고실에 비치하고 있으면서도 폐가식으로 청구서 등에 의한 열람을 시키고 있었으며, 자유 개가식을 택하고 있는 도서관은 38%로 나타났다. 이것은 장서의 관리상 문제이겠으며, 끝으로 정리와 이용의 관점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정리를 하고 이용시키는 것이 좋다는 반응이 85%로 나타났으며, 이것이 효과적이라는 점에서는 논자도 수긍한다. 그런데 특기할 것은 H大의 경우 정리를 안 하고 이용시키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유일한 반응을 보인 점이다.

3. 大學別 問題의 提起

설문회수교의 과반수가 자기 문제점 및 추가 기술을 하여 준 것으로 나타남바 이를 간결하게 요약해 보기로 한다.

Do大는 급증하는 학위논문의 정리 부담이 어려워져 조만간 학위논문 정리 전달사서를 배치할 계획이며, S大의 경우 학위논문의 여분이 없어 타교에 기증하지 못하는 실정을 밝혔다. J大는 학위논문의 정리가 시간적 인력적 많은 노력이 요구되고 있지만, 이용에는 많은 도움이 되므로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이었다. D大는 학위논문의 폐가제 이용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이용상의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Yi大의 경우 대출실에 비치하여 이용시켜 왔으나 이용도가 높아져 별도의 학위논문실을 마련하여 이용시키고 있으며, 대학원생에 대하여는 Overnight loan(밤샘대출)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타대학의 논문은 모교 해당학과만 인수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Y大의 경우, 대학 간의 상호대차 제도만 확립된다면 각 대학이 모교의 논문만 보관해도 되므로 보존 공간면에서나 정리 인력면에서 이용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자연 해소될 것이라는 제안을 내었다. 論者의 견해로는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 사료된다. 그러나 거의 많은 대학도서관들이 소극적인 자세와 비협조적인 자세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한, 이의 해결은 용이하지 않은 과제로 보여진다. 끝으로 Ho大의 경우 학위논문의 등록이 모순전인줄 알지만 중도에서 등록을 보류할 경우 등록선례의 사후처리가 문제점이며, 과감히 시정한다 하여도 현실적으로 난제로 부딪히고 있는 정리상의 문제도 대두되어 진퇴양난을 우려하고 있다. 다만 정리상의 문제에서 분류를 간결히 한다거나 목록작성을 보다 줄이고 이용시키는 방법이 시급히 마련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위논문의 수서나 정리에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은 틀림 없는 사실이다.

Ⅲ. 結

오늘의 우리나라 高等教育은 大學教育 위주에서 점차 대학원교육 중심으로 탈바꿈하려는 태동을 보이고 있다. 설령 이런 움직임이 사라진다 하더라도 현 시점에서 보전대, 대학원에서 계속 쏟아져 나오는 학위논문의 홍수 같은 증가는 대학도서관의 수서정책에서는 정리와 열람업무면에서 긴급 대응책을 앞당기어 요구하고 업무의 과중에 더욱 가중시키는 결과를 안겨 주고 있다.

아직까지는 선행 문헌조사에서 학위논문에 관한 도서관의 입장을 논한 연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시도조차 않고 있는 것 같아 우선 論者は 미흡하나마 문제를 제기하고, 앞으로 대학도서관이 학위논문에 관한 처리를 함에 있어 보다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대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 주기를 바라는 뜻에서 논술한 것이다. 지금까지 대학당국들이 대학도서관 발전에 노력해 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외관상 나타나는 시설이나 장서량이나 좌석수의 확보에서 보다 한걸음 나아가서 도서관 당국들이 이제 질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實利를 추구해 나가야 할 때이다.

오늘의 대학도서관, 특히 종합대학 도서관이라면 웬만큼 나름대로의 면목을 갖추어 나가고 있을 것이다. 과거의 선례에 집착하지만 말고 무사안일주의를 타파하고 미래의 대응책에 거시적 안목을 가지고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학위논문이 과거엔 장서증대에 묶을 했다 할지언정, 지금은 수증도서라 하여 무조건 등록하고 장서화하는 우를 범해선 안 될 것이다. 학위논문 뿐만 아니라 대학도서관의 수서정책은 재고되어야 할 것이며, 하루 속히 정책의 빈곤에서 벗어나야 될 것이다.

언젠가는 장서를 늘리는 것만 정책이 아니라 줄이는 것도 정책으로 등장할 것이다. 좋은 장서를 확보하는 것이 수서의 책임이라 하면 이것은 곧 그 도서관의 책임인 것이다. 학위논문을 꼭 장서화하여야만 이용되는 것은 결코 아닐 것이므로, 학위논문의 장서화는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학위논문의 정리를 해야 됴는 논자도 부인하지 않는다. 다만 정리방법의 혁신이 있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낀다. 모든 자료 중에서도 연구논문의 신속한 제공이 중요하고 앞선다. 따라서 신속한 정리가 요구되며 신속한 정리를 위한 정리방법의 개선과 정리인력의 충분한 확보가 모든 대학도서관에서는 아마도 공통된 문제점일 것이다. 한걸음 나아가서 열람자를 위해서는 더욱 더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인 것이다.